

범우출판포럼, 일제강점기 해외 한민족 출판 연구(2) 미주 초기 이민의 출판 활동

범우출판포럼(회장 부길만)은 지난해 10월 20일 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에서 제11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한인쇄문 화협회 유창준 전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일제강점기 해외 한민족 출판에 관한 연구를 대주제로, 제1주제는 순천향대 박몽구 외래교수가 '디아스포라 극복과 재일 한국인 출판'을 발표했으며 제2주제는 도서출판 북산책 김영란 대표가 '미주 초기 이민의 출판 활동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본지에서는 연구 전례가 적었던 이민 초기 미국 이민사회의 인쇄 및 출판을 연구한 김영란 대표의 '미주 초기 이민의 출판 활동에 관한 연구'를 2회에 걸쳐 게재한다.



김영란 (도서출판 북산책 대표)



〈지난호에 이어〉

도합 일백칠십소조를 만들어 기계로 식자하여 각종 신문서적을 출판하게 되었으니...지금 다시 연구하여 국문을 기량하여 팔십조 이하의 수로 모단 서적을 출판하게 하고...이러케 하면 식자하기도 더욱 신속하고 장차 이로 타입우라이더(사조기)도 만들 수 있스니, 이는 우리 국문 발달에 크게 유조할지오¹³⁾

1915년 3월 1일 '인터타이프' 회사에서 한글 식자기를 인터타이프(Intertype)식 주조 식자기(鑄造 植字機)로 제작했다. 이 기계는 한글 25자의 기본 글자와 중모음, 쌍받침까지 포함해 174개의 활자를 합성해 사용했는데 1917년 봄 이대위는 그보다 더욱 간단하고 빠른 196자 모노식 활자 발명에 성공했다.

一획 九十六자 모노식의 활자는 인공이 더욱 간첩, 六백원 자본을 가지면 이러한 활자를 넉넉히 제조...그 경비를 기산하면 三,四천원 자본을 가져야 할지니 이것이 현금 한인의 형편에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 그런 고로 일인이 생각하기를 국문활자는 일본에서 제조발미치 안으면 한인이 다시 국문활자를 사용할 수 업스리라 함이니 이는 한국을 멸하는 계획을 명하고 또 성공까지 맞는 것이라 그러지만 한국의 국문은 二十세기 진시황의 불속에서 오히려 오히려 능히 실낱같은 운명을 유지하여 임의 인터식의 활자가 발명되었고 지금에 다시 모노 활자를 성공 하였스니...¹⁴⁾

13)간찰한 구청 「신한민보」 1915.3.11. 14) 「신한민보」 1917.4.5.

모노식 활자는 그동안 사용하던 국문 활자 5호가 한 줄씩 이어 나오는 식이 아닌 매자 떨어져 나오는 식이었다. 이대위는 인터식 사용은 식자 기계를 사든지 세를 내야 하는데 가난하고 세내기가 어려워 모노식 활자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구식 활자 같이 손으로 식자할 수 있는 사진판이고 그 조직체가 신식 활자와 같이 완전했다. 본형의 전부가 196자로 인터식보다 겨우 30여자가 더했지만, 자모음의 연결이 교묘하고 또 복음의 글자가 구비되어 4천여 종 국문을 다 쓸 수 있었다. 이대위는 사람의 수고는 2배 또는 거의 3배 적게 들고 영문 활자 같이 한 판에 담아 놓고 식자할 수 있다며 기뻐했다. 그는 한글주자를 강철몰드 한 글자에 5원씩 주고 만들어서 사용했는데¹⁵⁾ '신한민보'는 자체 내 출판기구를 두고 3월 11일자 제 359호부터 이 식자기로 신문을 발행했다. 인쇄기술 발명은 출판의 간소화는 가져왔지만 기계를 살 자금이 문제였다. 자신이 만든 국문활자 제작에 대한 소망이 절실하던 이대위는 해외 한인 동포들이 자본을 모아 국문 활자제조를 간절히 바랐다. 기계를 만들어도 구입이 문제여서 이대위는 출판에 필요한 글자 210자 만드는 값이 1050원, 식자 기계 값이 3000원이라 4000원이 없어 못한다며, 지금 1000원만 있으면 기계를 사오고 나머지는 매달 50원씩 주면 된다고 그 금액은 현재 신문 식자인의 월급 주는 것으로 하면 된다고 했다. 실업에 관계하는 한인 회사에서 식자 공전만 받아도 이익이 적지 않고 몇 해 후에는 3000원짜리 기계 하나는 절로 나온다고 했다.¹⁶⁾ 그러나 아무리 편리한 활자라도 제조 경비가 과다해 자신들의 힘으로 만들 수가 없게 되자 출판 주체들은 활자 본형을 가지고 샌프란시스코 각 활자 회사에 문의를 하였다. 키스톤 회사에서 6백 원이면 넉넉히 전부를 제조한다는 말에 이대위는 6백 원은 본형 제조비고 본형을 제조한 후에는 매우 적은 값으로 활자를 사 들일 수 있다고 초기 이민을 설득했다. 활자를 신문 한 장을 출판할 만큼 사려면 그 가격이 얼마나 들지 분명히 말할 수 없지만 대략 일본에서 사다 쓰는 것보다 심히 헐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¹⁷⁾

제조비를 둘로 나누어 누구든지 330원만 내면 우선 3백 파운드 중량의 국문 활자를 만들고 그 후에는 많든지 적든지 주문에 따라 청구하는 대로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일을 실행하면 직접적으로는 상당한 가격의 활자 한 틀을 사는 일이고, 간접적으로는 국문보존의 이익으로 보았다. 당시 5호는 이미 인터식 신식 활자를 가지고 있기에 4호와 2호를 제조하면 국문 활자는 각종 호수를 구비하는 일로, 무엇보다 일인에게 제조를 의뢰치 않고 한인 힘으로 서적과 신문을 출판해 국문을 보존하는 일이라고 했다. 글자주조를 간절히 바란 그는 300원만 빌려주면 본인이 매년 십분 변리로 갚겠다고 했다.

그가 은 한 틀에 삼백원 이하로 만들지라도...본인에게 삼백원을 차용하여 주시면, 그 돈으로 신식주조를 만들어 국문 기량을 시작하고, 그 돈은 본인이 10년에 십분 변리를 갚다가 장차 본전까지 환보할 터이니, 형제 중에 이 일을 성각하시느 이가 잇기를 간절히 바라노라.¹⁸⁾

기계를 구입하여 '신한민보' 사는 신문사와 대한인국민회가 함께 식자 기계가 있는 419 마켓 St. 데이빗 휴스 빌딩(Hewes Bldg)으로 기계를 따라서 이사를 갔다.¹⁹⁾ 백인의 기계를 세를 얻어 썼는데 일주일에 5일을 오후 5시부터 밤 11시 반까지 빌려서 일을 했지만, 바쁜 시간에 기계가 병이 나면 며칠 씩 밤을 새고 또 다른 이유로 미쳐 교정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인쇄부로 실어 보내 신문 출판에 항상 만족하지 못했다. 그러나 주인의 사정으로 7시부터 사용하라고 했지만 그것도 어려움을 겪었다.

15) '식자기계' 「신한민보」 1940.2.29. 16) 「신한민보」 1914.5.7, 1면 17) 「신한민보」 1917.10.26.
18) 「신한민보」 1915.3.11. 19) 「신한민보」 1917.11.1.

기계를 사려면 2천원이 드는데 기계 빌릴 곳을 알아보았지만 쉽게 빌릴 수가 없었다며, 그동안 기계 빌리는 돈으로 한 달에 30원을 사용하였는데 35원은 주어야 기계 주인이 만족한다고 했다. 그래서 더 이상 기계를 따라 이사를 다니는 대신 500원을 현금을 내고 한 달에 50원을 내면 4년만 지나면 기계가 우리 것이 된다고 했다.

매달 그냥 나가는 35원은 단순히 소비의 소비지만 40원이나 50원을 내면 기계가 우리의 것이 되는 저축의 소비라며 10원만 더 내면 기계를 살 수 있고 이사를 안 다녀도 된다고 호소했다. 2천 6백 원이 있으면 기계 값 6백 원에 인터식 4호 활자를 6백 원에 만들어 준다며 대한인국민회 총회는 재정이 없고 결정하는데도 한 달은 걸리니 그 사이 신문을 출간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대위가 기계를 구입하여 세를 주었다며 오늘이라도 돈이 되면 기계를 살 수 있다는 기사와 새 기계 사진을 신문에 크게 실었다. 대한인국민회는 INTER-TYPE 식자기계를 사려는 기금마련 입안을 정하고 일 년 동안 기계살 금액을 모금했다. 1918년 1월부터 신문에 기계 그림을 그려놓고 밑에 모금 액수와 기부자 이름을 크게 게재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1년을 모금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²⁰⁾ 이대위는 '미국의 공업전매권'을 포기하였다. 교민들의 힘으로 기계를 구입하고 한인이 만든 인쇄술로 외국에서의 한글 출판은 이루어졌지만 신문발간에 적자가 생겨 정간이 되면 광고수입과 구독료를 받을 수 없으니 재정난은 가속화되었다.²¹⁾

'공립신보'는 제2권 1호부터 1883년 10월31일 창간된 한국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와 같은 방법인 활판 인쇄로 찍었다. 덕분에 지면이 선명해졌고 광무 14년 4월에는 비로소 '공립신보'에 활자를 사용했다. '공립신보'사는 신문사 안에 인쇄 부를 두고 신문, 잡지, 서적 외에 명함, 인찰지, 봉투, 영수증, 카드, 광고지, 포스트 카드 등을 한글이나 영어로 인쇄해 수입을 올렸다. 종이 값은 인찰지가 백장에 25전이고 명함지는 백장에 50전을 받았는데, 경치 좋은 한국 명소를 인쇄해 12장을 1다즌으로 20전에 판매했다. 본사에서 인쇄하는 각색 엽서의 한 종류라며 독립문 포스트 카드 등 카드도 팔았다. 1907년 인쇄 광고에는 처음으로 사진도 실었는데 독립문 사진이었다. 국문지도는 12장에 50전을, 채색한 것은 한 장에 15전을 받았고, '새해에는 소원을 성취하시고 복락이 무궁하심을 축수하옵나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새해 포스트 카드 주문은 12장에 20전이나 60장 이상 주문 시는 카드에 이름을 인쇄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당시 한국출판 서적은 B5판(사륙배판)에 5호와 4호 활자가 본문에 사용됐는데²²⁾ 미주도 시각상 거부감 없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민의 개화와 국민계몽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출판이라는 것을 확인한 출판 주체들은 주체적으로 우리의 출판 기술을 활용해 신문과 서적 출판에 앞장섰다.

한국의 인쇄 공업은 문명진보의 원소이며 시발점이기엔 인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임무를 문화 개진의 원소로 여기고 기술 개발을 장려한다면 국가의 문명과 사회의 학문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²³⁾ 이민의 개화와 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한 초기 이민의 출판 주체들의 노력도 그와 다르지 않았다. 신문 발간에는 글을 쓰는 일 외에 등사부터 여러 일에 종사할 사람이 필요했다. 많은 수의 인원이 참여했으며 몇 사람의 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1908년 경우 신문사 직원은, 발행 겸 편집에 최정익, 총무원 허승원, 회계원 김영일, 인쇄원 전성덕과 김종립으로 5명으로 신문은 초기 이민의 문

20) 「신한민보」 1918.12.26. 기계채를 갖내기 위하여 한성준씨가 五十원을 기부 「四二五一年도 대한인국민회 북미 총회 第九회 대의원회 립안 데 一도에 말한 「신한민보 간행의 편리를 위하여 신식활자 기계(INTER-TYPE MACHINE)를 살일이 의안을 실시하기 위하여 북미 총회 당국자와 각지방의 동포들이 협력하여 지난 一년 동안을 열심 성력한 결과로 장차 도혼 성적을 얻게 되었거니와 이제 월로우 쓰 버농장에서 몇히동안 농업에 힘쓰든 동포 한성준씨도 또한 국민회의 사업이 발전되기를 꾀하여 명년 농사의 자본이 부족할 것을 심각지 안코 금화 五十원을 기부하였더라.

21) '본보 계간 「신한민보」 1913.6.23. '우리의 「신한민보」에 드는 경비는 일 년에 삼천여 원이요... 거월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동포들이 신문을 위하여 연조 적은 금액이 3백여 원에 달한 후에 캘리포니아주 남부에 있는 동포들이 열심히 화답하여 지금 연조 적은 액수가 1천 5백 원에 미쳤고 우선 들어온 금액이 4백 원에 달하였으므로 지금 신문을 다시 계간하게 되었으니...'

22) 양문길 외, 앞의 책, p.48

23) 김봉희, 앞의 책, p.39

명개화 역할을 담당하며 한인의 고유한 출판 기술로 미주에서의 출판 전통을 이룬 쾌거였다. 미주 교포들은 ‘씨비엠’ 기계로 24년이나 ‘신한민보’ 제작에 사용하였는데 1939년에야 신형 C2로 바꾸고 1940년 2월에는 활자판 교체하여 사용하였다.²⁴⁾ 글자의 발명과 보급 그리고 인쇄술의 발달이 없었다면 인류문화의 발전은 이를 수 없었듯, 초기 이민 또한 고유한 한글로 인쇄술을 발명해 이민 문화 발전과 미국 속 한인들의 정체성을 이어갔다.

2. 인쇄기술 발명의 역할과 의의

인쇄기술의 발명으로 한국 개화기에 한국에서 많은 서적들이 출판되었듯, 미주에서의 인쇄술 발명은 대량 생산으로 출판과 보급을 가능하게 하며 출판물 제작에 혁신을 가져왔다. 영세하나마 인쇄문화의 기초를 이루고 초기이민의 지적 혁명과 문화적 부흥을 일으키게 했다. ‘신한민보’를 비롯한 본격적인 한글 출판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문맹이던 초기 이민이 신문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을 받는 기반이 되었고 사회적 정치적으로 세계를 인식하는 눈을 키우게 됐다. 또한 한글의 문화성과 고유성을 유지하며 자긍심을 높이고 국어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다.

인쇄술의 발명으로 초기 이민의 정보화와 문화 창달에는 크게 기여하며, 외국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 글자로 출판물을 생산하여 출판물의 대중화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초기 이민에게 미디어는 정보 전달과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업이었다. 책의 대량출판과 보급이 가능해지면 서 책값이 싸졌고 이민 누구나 신문과 잡지, 서적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활자 인쇄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되었고, 한글로 된 신문은 이민의 구심점이 되어 이민의 민족문화 발전에 공헌하였다. 이대위의 한글 식자기 발명은 한인만이 아니라 미국인들에게도 크게 가치를 인정받았다.

1917년 9월 데일리 팔로알토 타임지(The Daily Palo Alto Times)에 한글 식자기 발명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시카고 인랜드 프린터(Inland Printer) 8월 호에 실렸던 윌리엄 홀(William I. Hall)의 ‘단순화한 동양 글자’ (Simplifying Oriental Languages)라는 주제로 실린 글이었다. 그 신문은 한국어 알파벳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어지고 동양식 식자기가 제작된 것은 세기의 위대한 진전이라고 치하했다. 윌리엄 홀은 한글이 한문처럼 상형문자가 아니라 음표문자고 알파벳을 가지고 있기에 배우기 쉽고 글의 보급이 용이하니, 동양 나라들이 장차 이러한 글자를 사용하게 되면 일찍이 인쇄술의 발달로 서적과 팜플렛이 출판 보급됨으로써 유럽에 문예부흥을 가져 왔듯이 동양에도 교육부흥(educational awakening)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칭찬하였다.²⁶⁾ 그리고 ‘이 꿈은 바로 이대위 목사의 꿈이었다.’ (‘To assist in accomplishing this is the hope of Dr. David Lee’)라고 치하하였다.²⁷⁾

이대위의 한글 식자기 발명이 재미 한인사회의 모국어에 대한 자신감과 자긍심을 높여주며,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요구에 부응하는 출판을 통해 이민의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이다. 동희슈부라는 필명으로 ‘신한민보’ 주필을 지내며 글을 많이 썼던 흥언은 이대위가 사망하였을 때, 우리 국문은 그의 국문활자 기계 발명으로 우선 ‘신한민보’ 출판의 편리를 주었고, 또 장래 우리 국문 출판계의 무궁한 편리를 주게 되었다며 그로 말미암아 빛을 더하여 장차 완전히 더 발달될 수 있다고 그의 출판 업적을 추모하였다.²⁸⁾

24) ‘식자기계’ 「신한민보」 1940.2.29. ‘신식기계에 대하여」 「신한민보」 1940. 3.21.

이대위 때 만들던 가격대로 해도 8백 원 이상 경비가 든다며 인터타임 회사에서 신철자 법에 글자 70여자 모형을 무료로 조각하여 주었다.

26) 유석중, 『애국지사 이대위』, 북산책, 2010

27) 「신한민보」 1917.9.27. “Simplifying Oriental Languages”

28) 이대위는 국민회 총회장과 목사로 일하였고, 「신한민보」와 「대도」주필 등 초기 이민의 출판의 주체로 이민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다가 과로로 50세에 사망하였다.